

# 주일 예배 순서

- 성령강림 후 마지막 주 -

- 조용한 기도(Silent Prayer) ..... 시 146:1-5 ..... 다함께
- 찬 송(Opening Hymn) ..... 43장(새 40장) ..... 다함께
- 교독문(Responsive Reading) ..... 새 47번(스크린 참조) ..... 다함께
- 공동기도(Prayer) .....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가장 복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하시고 세상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알고 누리며 세상의 영광을 추구했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저희가 만나는 이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항상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오며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사도신경(Apostles Creed) ..... 다함께
- 성경봉독(Scripture) ..... 고린도전서 1:26-31 ..... 인도자
- 말씀증언(Sermon) ..... 이송원 목사

## 나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 봉 헌(offering) ..... 351장(새 321장) ..... 다함께
- 환영과 소식(Welcome/Announcements) ..... 인도자
- 찬 송(Hymn) ..... 533장(새 484장) ..... 다함께
- 축도(Benediction) ..... 이송원 목사

## 교회 소식

1.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애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2. 오늘 친교시간 후 12:30분에 소망속회로 모입니다.
3. 2024년도 교회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정용, 사업장용으로 1부씩 가져가 시되 전도용으로 사용하실 분은 추가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4. 12월 말씀 묵상집이 나왔습니다.
5. 12월 10일(주일) 예배 후에 구역회가 있습니다.

### <기도제목>

-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미 연합감리교회(UMC)가 회개와 순종을 통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 한마당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며, 기도와 교제와 예배를 통해 믿음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지도록.
- 영어권 사역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 치유와 회복을 위해  
(박현숙성도님, 허영희성도님 시어머님, 캄보디아 조동천선교사님)

### <이 달의 속회 적용점> 마태복음 25:31-46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이며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자신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작은 자들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돕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지금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돌봄과 섬김이 필요한 이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고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을 펼칩시다.

**〈말씀묵상〉 고린도전서 1:26-31**

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라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1.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26-29절) 예수님을 믿기 전 나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다?
2. 사도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0-31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와 왕이신 예수님 안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항상 거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도와 말씀묵상 그리고 금식과 성찬과 같은 경건행위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것 자체에 더 큰 의미를 두게 되면 그때 종교가 됩니다. 종교란 경건행위를 통해 자신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며 더 나아가 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을 망각하고 은사 자체에 매여 자신을 내세운다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좋은 영적 지도자들 아래서 믿음이 성장했고 교회 안에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되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뿌리를 두고 서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은사도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너무도 아팠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라 되지 않을 때 이런 일은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며, 그분을 제외하면 그 어느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자랑임을 매 순간 느끼고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창립 1981년 10월 24일

# 한 마당 연합 감리 교회

*Han Madang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Pastor) 이송원 목사(Rev. Songwon Lee)  
반 주 자(Pianist) 기길숙 성도

7800 West Pleasant Valley Road, Parma, OH 44130

☎ 교회: (440)845-1728 / 사택 (330)388-2814

E-mail : hanmadang@gmail.com

웹사이트 <http://www.hanmadang.org>